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2월 1일(목) 총 2매		
담당 부서	마이스산업과	담 당 자	• 국제회의추진팀장 • 담당자	전현주 이승진	☎458-7231 ☎458-723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염원 담은 조형물 ... “2025 APEC 정상회의는 인천에서”
- 인천시청 애플광장,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기원 조형물 제막식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1일 인천시청 애플광장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기원 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기원 이벤트의 일환으로 유정복 인천시장 및 허식 시의회 의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기원 조형물에는 인천 최초의 세계적인 정상회의 유치 성공의 염원이 담겨 있으며, 시는 앞으로 조형물을 활용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유치기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명: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포토 이벤트 등도 계획중이다.

특히, 조형물 ‘INCHEON’의 ‘I’자 앞 공간에 올라 시민 본인이 ‘I’자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과 함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조형물로 제작됐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의 정상과 각료 등 약 6,000여 명이 모이는 연례회의로 정상회의, 고위관리 및 관료회의, 기업회의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만인 오는 2025년 11월 국내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인천을 비롯해 부산, 제주, 경북 경주 등이 유치의사를 밝히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은 녹색기후기금(GCF) 등 15개 국제기구가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도시로, APEC의 3대 목표인 무역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을 잘 실현할 수 있는 APEC 개최 최적의 도시다.

앞서 지난 9월 유정복 시장은 싱가포르에 있는 APEC 사무국을 방문해 사무총장을 만나 2025 APEC 정상회의의 인천 유치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바 있으며, 10월 친환경 자전거축제 ‘2022 송도 슬로우롤’ 행사에서 5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APEC 정상회의 유치 염원을 나누기도 했다.

유 시장은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구성, 오는 12월 지지선언식을 개최하고 각계각층이 뜻을 모아 유치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인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0시30분)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